

(2023. 2. 20.)

산업동향 Vol. 112

양재완

산업분석실

선임연구원

2022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실적 분석

KATECH Insight

- ◆ '22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과 고금리·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, 중국 시장의 높은 성장으로 802만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완성차 판매량 전체의 9.9%를 차지
- ◆ '23년에 전기차 공급 병목 현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 각 기업의 가격·시장·제품 전략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

- '22년 글로벌 전기차(BEV) 판매량은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과 고금리·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802만대를 기록하며 완성차 전체 판매량의 9.9%를 차지
 - '22년은 지속된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으로 차량 인도가 지연되고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, 러-우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으로 소비 위축 현상이 자동차 시장*에도 영향
 - *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은 '20년 7,777만대에서 '21년 8,144만대로 4.7%의 연간 성장률을 보였으나, '22년은 8,063만대를 판매하며 △1.0% 역성장 (LMC Automotive)
 -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802만대(전년 대비 68% 성장)를 기록하며 완성차 판매량 전체의 9.9%를 차지
- '22년 국가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전기차 최대 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으며, 중국·유럽·미국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93.3%를 차지
 - (중국) 판매량 500만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1위 시장을 수성하였으며 시장 점유율도 확대
 - (유럽)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지역의 전기료가 급등하면서 성장세는 다소 약화
 - * 독일의 경우 '22.12월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평균 0.43유로로, '22년 하반기에만 약 30% 증가(무역협회)
 - (미국) 현대차그룹의 전략적 신차 확대 효과와 테슬라·포드 등의 견고한 성장세로 증가
- 완성차 그룹별로는 보급형 모델의 판매 확대로 1위를 수성한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는 BYD와 초소형 전기차로 입지를 확대한 상해기차가 2~3위 차지
 - (테슬라) 중국 시장 내 부진과 경쟁 기업들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보급형 모델인 '모델Y'와 '모델3'이 지속적인 판매 확대를 견인하며 글로벌 판매량 1위 수성
 - (BYD) '22.3월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배터리·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등 전방위적인 전기차 집중 전략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* 진출
 - * 최근 브라질, 호주, 일본, 독일에도 전기 승용차 판매망을 구축(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Vol. 101 참고)

- (상해기차) 디자인과 가성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해GM우링의 초소형 전기차 모델 ‘홍광 MINI’의 높은 판매량으로 글로벌 순위 3위 달성

* `22년 글로벌 전기차 모델 판매 순위: 1위 테슬라 모델Y(754,549대), 2위 상해GM우링 홍광MINI (563,400대), 3위 테슬라 모델3(492,597대)

- (현대차그룹) `21~22년간 다양한 신차 출시와 판매 지역 확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
- (스타트업) 제 2의 테슬라를 목표로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`22년 판매 목표 미달성*으로 고전

* `22년 리비안은 초기 생산 목표 5만대(`22.3월에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2.5만대로 축소)보다 적은 24,337대를 생산하였고, 루시드도 목표 2만대에 못 미치는 7,180대만 생산(기업별 IR 자료 기준)

■ 국가별 및 완성차그룹별 전기차(BEV) 판매량 (단위:대, %) ■

구분	2020		2021		2022		성장률 (20-21)	성장률 (21-22)	
	판매량 (대)	M/S (%)	판매량 (대)	M/S (%)	판매량 (대)	M/S (%)			
국가별	중국	1,054,123	47.5	2,727,313	57.1	5,075,286	63.3	158.7%	86.1%
	유럽*	782,561	35.2	1,292,751	35.2	1,622,895	20.2	65.2%	25.5%
	미국	260,055	11.7	505,267	11.7	802,653	10.0	94.3%	58.9%
	한국	46,909	2.1	101,112	2.1	162,987	2.0	115.5%	61.2%
	캐나다	30,928	1.4	50,033	1.0	92,871	1.2	61.8%	85.6%
	일본	16,028	0.7	23,291	0.5	61,251	0.8	45.3%	163.0%
	인도	4,386	0.2	10,043	0.2	47,563	0.6	129.0%	373.6%
	기타	25,366	1.1	68,507	1.4	155,049	1.9	170.1%	126.3%
그룹별	테슬라	494,244	22.3	938,435	19.6	1,313,887	16.4	89.9%	40.0%
	BYD	123,627	5.6	335,582	7.0	925,782	11.5	171.4%	175.9%
	상해기차	235,425	10.6	612,867	12.8	900,418	11.2	160.3%	46.9%
	VW	220,818	9.9	442,960	9.3	574,708	7.2	100.6%	29.7%
	Geely	43,581	2.0	120,637	2.5	422,903	5.3	176.8%	250.6%
	르노닛산	196,471	8.8	261,736	5.5	392,244	4.9	33.2%	49.9%
	현대차그룹	145,609	6.6	245,174	5.1	374,963	4.7	68.4%	52.9%
	기타	760,581	34.3	1,820,926	38.1	3,115,650	38.8	139.4%	71.1%
전기차 합계 (비중*)	2,220,356 (2.9%)	100	4,778,317 (5.9%)	100	8,020,555 (9.9%)	100	115.2%	67.9%	
완성차 전체	77,766,294	-	81,439,571	-	80,631,101	-	4.7%	△1.0%	

* 출처: 전기차: SNE리서치 `23.1월, 완성차: LMC Automotive `22.3Q(`22년은 예상), 비중: 전기차÷완성차

* `22년 유럽 국가별 판매량: 독일 464,255대, 영국 285,889대, 프랑스 220,840대, 노르웨이 138,569대 등

■ 국내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그룹의 주도 하에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, 테슬라는 차량 가격 인상으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량 감소

- (현대차그룹) `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델 다양화 전략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으로 `22년 국내 시장 점유율의 73.9%를 확보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
- (테슬라) `22년에 줄곧 차량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축소되며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가격을 최대 14% 인하하며 판매량 회복을 시도 중

* `22년 테슬라 모델3 기본 사양의 경우, 가격이 `21년 5,479만원에서 `22년 7,034만원으로 대폭 상승하면서 국고 보조금 혜택도 750만원에서 315만원으로 감소하였고, 최근 다시 5,999만원으로 인하

- (기타) 국내 수입차 중 인기가 높은 독일 프리미엄 3사(벤츠, BMW, 아우디)는 고급 전기차 모델 판매로 점유율을 높인 반면, 국내 중견 3사는 전기차 라인업 부족 등으로 판매가 다소 부진*

* `22년 중견3사 국내 전기차 판매량: 쉐보레 2,608대, 르노코리아 516대, 쌍용 114대

■ 국내 전기차(BEV) 판매량 (단위:대) ■

브랜드 구분	2020		2021		2022		성장률 (20-21)	성장률 (21-22)
	판매량 (대)	M/S (%)	판매량 (대)	M/S (%)	판매량 (대)	M/S (%)		
현대차그룹	27,888	59.5	71,897	71.1	120,438	73.9	157.8%	67.5%
현대	18,952	40.4	42,899	42.4	71,019	43.6	126.4%	65.5%
아이오닉5	-	-	22,671	22.4	27,399	16.8	-	20.9%
포터2EV	9,037	19.3	15,805	15.6	20,418	12.5	74.9%	29.2%
기아	8,936	19.0	28,998	28.7	49,419	30.3	224.5%	70.4%
EV6	-	-	11,023	10.9	24,852	15.2	-	125.5%
봉고EV	5,357	11.4	10,728	10.6	15,373	9.4	100.3%	43.3%
테슬라	11,826	25.2	17,828	17.6	14,571	8.9	50.8%	△18.3%
모델3	11,003	23.5	8,898	8.8	7,323	4.5	△19.1%	△17.7%
모델Y	-	-	8,891	8.8	7,248	4.4	-	△18.5%
벤츠	608	1.3	1,363	1.3	5,006	3.1	124.2%	267.3%
BMW	152	0.3	366	0.4	4,888	3.0	140.8%	1,235.5%
폴스타	-	-	-	-	2,794	1.7	-	-
아우디	601	1.3	1,553	1.5	2,771	1.7	158.4%	78.4%
기타	5,834	12.4	8,105	8.0	12,519	7.7	38.9%	54.5%
합계	46,909	100	101,112	100	162,987	100	115.5%	61.2%

* 출처: SNE리서치(`23.1월)

■ `23년에 전기차 공급 병목 현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 각 기업의 가격·시장·제품 전략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

- 완성차 업체의 노력에 힘입어 전기차 차량 선택지가 확대되는 동시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세를 보이고 있어 전기차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은 감소할 전망
- 다만 `23년 한해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완성차 교체 주기 연장 등 전기차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이 상존

* `23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년 3.4%에서 2.9%로, 선진국은 전년 2.7%에서 `23년 1.2%로 하락 전망(IMF)

- 이에 더하여,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에너지 요금 현실화 움직임과 중국·영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중단 및 독일 등의 보조금 삭감도 시장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- `23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가격 책정, 성장세가 강한 시장에 대한 차량의 적기 공급,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만한 높은 상품성을 갖춘 모델 출시 등 기업별 전략이 시장 점유율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